



VACHERON CONSTANTIN
GENÈVE

PATRIMONY 매뉴얼 와인딩
PATRIMONY 문 페이스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미니멀리즘과 모던함의 이야기를 담은 20년

엠바고 해제일 : 2024년 4월 9일 오전 9시(CET)

개요

그 무엇보다도 타협하지 않는 확고한 미니멀리즘

1950년대부터 이어져 온 모던함의 유산

20년의 역사를 지닌 우아한 품격

FROM GEOMETRY TO ARTISTRY®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PATRIMONY 매뉴얼 와인딩 PATRIMONY 문 페이스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 새로운 선버스트 앤티크 실버 톤 다이얼, 새로운 색다른 컬러의 스트랩, 커스터마이징 케이스백, 더 작아진 39mm의 직경으로 구성된 매뉴얼 와인딩 모델을 비롯한 3가지 신제품과 함께 워치메이킹의 미니멀리즘을 예찬합니다.
- 1950년대부터 이어진 유산, 그리고 당시 바쉐론 콘스탄틴이 제작했던 시계를 통해 클래식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구현합니다.
- 2004년에 처음 선보인 이래 20년간 우아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선보여 온 Patrimony 컬렉션을 기념합니다.

1950년대의 미니멀한 시계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라운드된 곡선과 심플한 라인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완성된 Patrimony 컬렉션은 20년간 순수한 스타일과 본질적인 요소를 향한 탐구 정신을 찬미해 왔습니다. 모더니티에 굳게 뿌리내린 컬렉션에서 새로운 직경, 다이얼, 스트랩 컬러에 커스텀 가능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3가지 모델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하이트 골드 또는 핑크 골드 소재의 2가지 매뉴얼 와인딩 모델은 39mm의 새로운 직경, 앤티크 실버 톤 다이얼, 맞춤형 인그레이빙을 볼 수 있도록 닫힌 케이스백, 그리고 아주르 블루와 올리브 그린의 2가지 새로운 컬러로 구성된 스트랩이 돋보입니다.

문 페이스 레트로그레이드와 데이트 창을 갖춘 새로운 화이트 골드 모델은 올드 실버 톤 다이얼과 올리브 그린 엘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VACHERON CONSTANTIN
GENÈVE





개요

그 무엇보다도 타협하지 않는 확고한 미니멀리즘

1950년대부터 이어져 온 모던함의 유산

20년의 역사를 지닌 우아한 품격

FROM GEOMETRY TO ARTISTRY®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PATRIMONY 매뉴얼 와인딩 PATRIMONY 문 페이지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확고한 미니멀리즘

언뜻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제된 디자인은 우아한 품격을 자아내고, 시대를 초월한 클래식함과 더불어 모던한 매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2004년 처음으로 소개된 Patrimony 매뉴얼 와인딩 타임피스에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먼저 2가지의 매뉴얼 와인딩 신제품은 어떤 손목 사이즈에도 편안하게 착용 가능한 새로운 사이즈로 출시됩니다. 40mm 사이즈로도 큰 사랑을 받았던 핑크 골드 또는 화이트 골드 소재의 케이스는 이제 클래식한 직경 39mm 사이즈로 등장합니다. Patrimony 컬렉션의 시그니처인 불룩한 다이얼에도 선버스트 마감 기법이 적용된 표면에 새로운 올드 실버 톤 컬러를 적용하여 특유의 미학을 담아냈습니다. 레트로 스타일의 다이얼 컬러는 Patrimony 컬렉션의 개성이 드러나는 슬림한 핸즈, 아워 마커, 폴리싱 처리된 48개의 18K 골드 펄로 구성된 원형 '펄' 미닛 트랙에 사용된 핑크 골드 소재와 대비를 이룹니다. 이와 같은 스타일 측면의 변화와 더불어, 엘리게이터 레더 스트랩 또한 새로운 아주르 블루 및 올리브 그린과 같은 독창적인 컬러로 출시되어 절제된 디자인의 Patrimony에 신선한 감각을 더합니다. 디자인에서 주목할 만한 마지막 미학적인 디테일은 닫힌 케이스백으로, 시계 소유자가 텍스트나 원하는 디자인을 골드 소재로 섬세하게 인그레이빙하여 나만의 개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절제된 디자인이 트렌드를 반영함과 더불어, 정확성 또한 분명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케이스의 중심부에는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1440이 박동하고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이 개발 및 제작한 이 무브먼트는 단 2.6mm의 두께로 4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VACHERON CONSTANTIN
GENÈVE



개요

그 무엇보다도 타협하지 않는 확고한 미니멀리즘

1950년대부터 이어져 온 모던함의 유산

20년의 역사를 지닌 우아한 품격

FROM GEOMETRY TO ARTISTRY®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PATRIMONY 매뉴얼 와인딩 PATRIMONY 문 페이즈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메종의 위대한 스타일과 기술적 전통을 계승하는 새로운 Patrimony 문 페이즈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시계는 42.5mm의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새로운 컬러의 다이얼을 조합하여 클래식하고 절제된 품격을 선사합니다. 2가지의 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인하우스 셀프 와인딩 칼리버 2460 R31이 탑재된 이 모델은 선버스트 옐드 실버 톤 컬러 다이얼은 핸즈 및 아워 마커에 적용된 핑크 골드와 섬세한 대비를 이루는 투톤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첫 번째로, 6시 방향에 위치한 문 페이즈 인디케이션으로, 눈금이 매겨져 있어 29일 12시간 45분으로 이루어진 달의 주기를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이는 122년마다 단 한 번의 조정만을 요구할 만큼 뛰어난 정확성이 돋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기술과 스타일의 시그니처인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디스플레이가 다이얼 상단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인하우스 칼리버는 말테 크로스에서 영감을 받은 형태로 오픈워크 18K 골드 로터를 통해 메종의 상징을 고스란히 표현합니다.

우아하면서도 절제된 디자인으로 시각적인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Patrimony 문 페이즈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또한 새로운 올리브 그린 컬러의 엘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이 장착되어 타임피스 전체에 생동감 넘치는 독창적인 컬러감을 선사합니다.



VACHERON CONSTANTIN
GENÈVE



개요

그 무엇보다도 타협하지 않는 확고한 미니멀리즘

1950년대부터 이어져 온 모던함의 유산

20년의 역사를 지닌 우아한 품격

FROM GEOMETRY TO ARTISTRY®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PATRIMONY 매뉴얼 와인딩 PATRIMONY 문 페이지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1950년대부터 이어져 온 모던함의 유산

Patrimony 컬렉션은 패션이나 트렌드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세대에 걸쳐 꾸준히 계승되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시대를 초월한 클래식한 매력을 품은 컬렉션으로서, 1950년대를 물들였던 확고한 모던함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후 이어진 세대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1950년대는 창작이 가져다주는 활기, 새로운 변화, 낙관주의가 만연했던 시대이자 패션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이며, 곡선과 직선을 기발하게 활용한 디자인과 순수한 형태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냈던 건축물이 돋보였던 때입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절제된 라운드 형태와 놀라운 만큼 슬림한 두께가 돋보이는 차별화된 타임피스에 당대의 에너지를 담아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얇은 1.64mm 두께로 제작되며 1955년 메종 설립 200주년을 기념하여 공개된 전설적인 칼리버 1003이 탑재된 3가지 울트라-씬 모델은 1950년대에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년 후에 바쉐론 콘스탄틴이 선보인 레퍼런스 6179는 이후 Patrimony 컬렉션에 풍부한 영감을 선사했습니다. 슬림한 베젤의 라운드 케이스, 슬림한 아워 마커와 '필' 미닛 트랙이 돋보이는 살짝 볼록한 다이얼은 불필요한 디테일 없는 둥근 디자인으로 클래식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완벽한 기술력으로 완성된 디자인은 이제 바쉐론 콘스탄틴 최고의 시그니처로 손꼽히는 Patrimony 컬렉션의 미니멀한 매력과 만나 새롭게 태어납니다.


VACHERON CONSTANTIN
GENÈVE





PATRIMONY 매뉴얼 와인딩 PATRIMONY 문 페이스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VACHERON CONSTANTIN
GENÈVE

개요

그 무엇보다도 타협하지 않는 확고한 미니멀리즘

1950년대부터 이어져 온 모던함의 유산

20년의 역사를 지닌 우아한 품격

FROM GEOMETRY TO ARTISTRY®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20년의 역사를 지닌 우아한 품격

바쉐론 콘스탄틴은 절제미라는 까다로운
스타일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2004년 공개되었던 첫 번째 모델부터 지금까지, Patrimony 매뉴얼 와인딩 모델은 모든 면에서 컬렉션에 영감을 준 1957년 레퍼런스를 충실히 구현해 왔으며, 이후로도 컬렉션의 정체성으로 자리잡은 코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수많은 워치메이킹의 컴플리케이션을 탑재한 디자인을 선보여 왔습니다. 퍼페추얼 캘린더,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 미닛 리피터, 울트라-씬 칼리버를 비롯한 주요 워치메이킹 컴플리케이션과 함께 해 온 지난 20년 동안, Patrimony 특유의 차분하고 절제된 분위기는 변함없이 유지되었습니다.



2004



2006



2015



2016

개요

그 무엇보다도 타협하지 않는 확고한 미니멀리즘

1950년대부터 이어져 온 모던함의 유산

20년의 역사를 지닌 우아한 품격

FROM GEOMETRY TO ARTISTRY®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PATRIMONY 매뉴얼 와인딩 PATRIMONY 문 페이지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VACHERON CONSTANTIN
GENÈVE

From Geometry to Artistry®

바쉐론 콘스탄틴의 타임피스에는 단순한 부품들의 합체 그 이상입니다. 스케치와 기하학적인 드로잉에서 시작하여 기술적 부문으로의 확장을 통해 형태, 색상, 그리고 질감이 어우러진 세계가 탄생합니다. 장인의 지성으로 감성에 생기를 불어 넣으며 기계 공학의 정교한 구조는 디자인과 결합하고, 세심한 디테일은 우아함을 더욱 강조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타임피스는 절차와 수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예술적인 재능을 최상의 경지로 표현하도록 영혼이 충만한 우아한 터치가 더해집니다. Traditionnelle 컬렉션의 클래식함, Patrimony 워치의 미니멀리즘, *l'Égérie*의 매력, 그리고 Overseas의 스포티하면서도 시크한 정신이 모두가 기하학적 형태에서 받은 영감을 예술적 기교로 승화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2024년 테마를 통해 완성됩니다.





개요

그 무엇보다도 타협하지 않는 확고한 미니멀리즘

1950년대부터 이어져 온 모던함의 유산

20년의 역사를 지닌 우아한 품격

FROM GEOMETRY TO ARTISTRY®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PATRIMONY 매뉴얼 와인딩 PATRIMONY 문 페이즈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바쉐론 콘스탄틴의 스타일 &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Patrimony 시계의 미니멀한 품격에 관해 논하자면 자연스럽게 슬림한 케이스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이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정통성을 확보해 왔나요?

슬림한 디자인은 바쉐론 콘스탄틴이 여러 세대에 걸쳐 탐구해 왔던 핵심적인 표현의 영역입니다. 메종의 아카이브에 있는 19세기 서신을 보면 "얇은 시계"라는 표현이 정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20세기 전반에 걸쳐 슬림한 디자인 분야에서 여러 차례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고, 슬림한 디자인을 향한 탐구 정신은 메종의 시그니처로 자리잡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예시는 바로 두께가 단 0.94mm에 불과한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가 탑재된 1931년의 포켓 워치입니다. Patrimony 컬렉션 자체도 울트라-씬 디자인, 특히 1950년대의 우아한 시계에서 직접적인 영감을 받았습니다. 메종 설립 200주년을 기념하는 1955년 시계를 위해 제작된 칼리버 1003에도 동일한 정신이 깃들어 있죠. Patrimony 컬렉션의 다른 모든 시계와 마찬가지로 이 예시들은 시대를 초월한 모던함의 정신에 굳게 뿌리내린 채 독보적인 절제미를 선보이겠다는 동일한 메종의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Patrimony와 같은 미니멀한 디자인의 시계를 개발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Patrimony의 디자인은 최소한 겉보기에는 정말 심플하지만, 고유의 특징을 해치지 않고도 디자인을 변경하는 건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Patrimony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정수를 담은 시계로 빠르게 자리잡으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2004년에 처음으로 선보인 이후로, 메종은 컬렉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메커니즘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반영되면서 2006년에는 Patrimony 레트로그레이드 데이-데이트, 2011년에는 Patrimony 퍼페추얼 캘린더 울트라-씬, 2013년에는 울트라-씬 미닛 리피터, 2017년에는 Patrimony 문 페이즈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와 같은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직경과 같이 세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더 작은 직경으로 구성된 Patrimony 매뉴얼 와인딩, 새로운 다이얼 컬러, 새로운 스트랩 컬러, 맞춤형 디자인이 가능한 공간과 같은 색다른 변화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면서도 모던함을 정확히 반영하는 Patrimony의 장점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VACHERON CONSTANTIN
GENÈVE



PATRIMONY 매뉴얼 와인딩 PATRIMONY 문 페이스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VACHERON CONSTANTIN
GENÈVE

개요

그 무엇보다도 타협하지 않는 확고한 미니멀리즘

1950년대부터 이어져 온 모던함의 유산

20년의 역사를 지닌 우아한 품격

FROM GEOMETRY TO ARTISTRY®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TECHNICAL DATA

Patrimony moon phase retrograde date

Reference	4010U/000G-H070
Calibre	2460 R31L 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Vacheron Constantin Mechanical, self-winding 27.2 mm (1 1/2") diameter, 5.4 mm thick Approximately 40 hours of power reserve 4 Hz (28,800 vibrations/hour) 275 components 27 jewels Hallmark of Geneva-certified timepiece
Indications	Hours, minutes, retrograde date Precision moon phase, age of the moon
Case	18K white gold 42.5 mm diameter, 9.7 mm thick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Water-resistance tested at a pressure of 3 bar (approx. 30 meters)
Dial	Old-silver-toned, sunburst finishing Convex external zone, 18K 5N pink gold pearls applied circular minutes track 18K 5N pink gold applied hour-markers and hours & minutes hands
Strap	Olive-green <i>Mississippiensis</i> alligator leather with calf inner shell, tone-on-tone stitching, square scales
Buckle	18K white gold pin buckle Polished half Maltese cross-shaped



개요

그 무엇보다도 타협하지 않는 확고한 미니멀리즘

1950년대부터 이어져 온 모던함의 유산

20년의 역사를 지닌 우아한 품격

FROM GEOMETRY TO ARTISTRY®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PATRIMONY 매뉴얼 와인딩
PATRIMONY 문 페이스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TECHNICAL DATA

Patrimony Manual-Winding

References	1410U/000G-H017 1410U/000R-H018
Calibre	1440 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Vacheron Constantin Mechanical, manual-winding 22.1 mm (9 1/2") diameter, 2.6 mm thick Approximately 42 hours of power reserve 4 Hz (28,800 vibrations per hour) 116 components 19 jewels Hallmark of Geneva-certified timepiece
Indications	Hours, minutes
Case	18K white gold / 18K 5N pink gold 39 mm diameter, 7.7 mm thick Closed caseback Water-resistance tested at a pressure of 3 bar (approx. 30 meters)
Dial	Old-silver-toned, sunburst finishing Convex external zone, 18K 5N pink gold pearls applied circular minute track 18K 5N pink gold applied hour-markers and hours & minutes hands
Strap	Olive-green/Azure blue <i>Mississippiensis</i> alligator leather with calf inner shell, tone-on-tone stitching, square scales
Buckle	18K white gold / 18K 5N pink gold pin buckle Polished half Maltese cross-shaped



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되어 270년 가까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속해온 시계 제조사로, 여러 세대를 거쳐 숙련된 장인들을 통해 탁월한 워치메이킹의 유산과 세련된 양식의 정교한 시계 제조 기술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대표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창적인 기술, 미학적 완성도, 최상의 장인 정신과 마감 기법으로 품격 있는 타임피스를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보적인 전통과 혁신의 정신으로 고유의 가치를 이어오며, 패트리모니, 트레이디셔널, 메티에 다르, 오버시즈, 피프티식스, 히스토리 그리고 에제리 컬렉션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메종은 안목 높은 시계 애호가들에게 "캐비노티에"를 통해 특별한 주문 제작 시계뿐만 아니라, 레 컬렉셔널로 구성된 빈티지 타임피스를 경험할 수 있는 진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VacheronConstantin

#OneOfNotMany


VACHERON CONSTANTIN | ONE OF
GENÈVE NOT MANY.

